

# 담양군,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총력'

### 공직자 800여 명 대상 대사증후군 검사 진행

### "바른 생활습관·정기적 검사 자기관리 주요"

담양군은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공직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사를 진행했다.

지난 12일부터 실시한 대사증후군 검사는 체성분, 혈압·혈당, 복부둘레, 혈액검사(지질4종)와 고혈압·당뇨병 유질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을 위해 당화혈색소와 미세단백뇨를 추가 검사했다.

또한 혈액검사 등 검사결과에 따라 운동, 영양, 건강관리 등 영역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공직자 대사증후군 검사 외에도 움직이는 건강증진실 운영, 자기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 만성질환 건강교실 등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생활습관과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자기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의

질병예방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나주시, 슬기로운 금융생활 돕는다

나주시는 청년들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청년센터 내 금융복지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0월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 금융복지상담실은 경제적 여건이 취약하거나 체계적 재무 관리가 필요한 청년, 사회초년생, 저소득층 시민 등을 대상으로 금융복지와 관련된 통합적인 상담 서비스

신용, 재산 관리를 돕는 생애주기별 재무설계도 지원한다.

운영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로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061-285-3983) 또는 나주시 청년센터(☎061-333-7987)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청년센터는 나주시 토계길 61(옛 송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5시까지 청년센터 내 금융복지상담실 운영 청년·사회초년생·저소득층 대상 효율적 자산관리·경제 자립 지원

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파견한 금융복지상담사를 통해 채무조정, 재무상담, 채무자 대리인제도 비용지원,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피해구제 관련 법률 등을 안내한다.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월급 재무설계, 학자금 대출상환 상담, 금융사기 피해예방 등 올바른

월동행정부(센터)에 위치해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금융복지 상담과 취·창업,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청년, 저소득층 시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립과 회생을 돕고 시민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곡성군, 태풍 및 호우 피해 벼 전량 매입

### 내일부터 일반 벼 40kg 30000원·피해 벼 30kg 20000원

곡성군은 11월 4일부터 태풍 피해 벼를 시작으로 건조벼 매입을 11월 2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곡성군은 2020년산 전사과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농가 대상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운영해 노후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곡성군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마다 농기계 안전교육 동영상 상영하고, 안전수칙 홍보물을 배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성 중인 농기계종합교육장이 완공되면 여성농업인과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조작법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매입 검사장에서 사용할 손소독제와 예비 마스크를 읍면에 배부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태풍 및 호우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 농가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총 매입물량으로는 산물 벼는 400톤, 건조 벼는 3,817톤을 예상하고 있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일단 수매 직후 중간 정산금을 지급하고 연말에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최종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간정산금의 경우 일반 벼는 40kg 1가마당 30,000원, 피해 벼는 30kg 1가

곡성=양해영 기자

# 화순 너릿재 옛길, '건고 싶은 전남 대표 숲길' 선정

### 전남도 숲길 공모서 '가을 대표 숲길' 우수상 받아



화순군은 너릿재 옛길이 지난달 29일 '건고 싶은 전남 숲길 공모'에서 전라남도 대표 숲길 12곳 중 한 곳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너릿재 옛길은 '가을 대표 숲길'로 뽑혀 우수상을 받았다.

전라남도가 주관한 '건고 싶은 전남 숲길 공모'는 국민이 숲길을 걸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숲길을 선정하는 경연으로 계절별로 3개의 숲길, 총 12개 숲길을 선정했다.

이 중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3곳은 기관 표창과 함께 숲

길 가꾸기 예산과 홍보 등을 지원받는다.

너릿재 옛길은 광주와 접근성이 좋고 대규모 구절초 단지 조성되어 있고 숲길 주변에는 울긋불긋 예기 단풍이 주변 숲과 어울려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하는 가을 대표 숲길로 유명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상생활과 여행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산림 서비스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며 "트렌드 변화,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침수피해' 구례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

### 사업비 70%(259억) 국비 지원 2022년 착공 2026년 준공 목표 구례읍·마산면 일대 사업 대상

구례군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구례읍·마산면 일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부에 신청한 2020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2차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2020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2차' 1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됨에 따라 구례군은 총사업비 370억 원의 70%인 259억을 국비로 지원받아 도

시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구례군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앞서 구례군은 여러 중앙부처장이 방문할 때마다 구례군의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저지대에 도시가 형성되어 강우강도 30년 빈도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 이번 선정에 높은 점수를 부여 받았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하수도 정비대책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며, 사업대상지는 구례읍 빗물펌프장과 펌프일체형 수문 신설, 하수관로 3.75km 신설 및 개량, 마산면 하수관로 2.14km를 신설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시침수에 대한 예방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이번 침수피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조속한 수해복구와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장성군, '농번기' 농기계 사고 받들없이 막는다

장성군이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농가 대상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운영해 노후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장성군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마다 농기계 안전교육 동영상을 상영하고, 안전수칙 홍보물을 배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성 중인 농기계종합교육장이 완공되면 여성농업인과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조작법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